스마트팜 산업의 수출 추진전략

2023.3.22.

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

CONTENTS

- I. 식량산업의 환경과 스마트팜
- **Ⅱ.** 스마트팜 확산과 추진과제
- 皿. 스마트팜 수출 추진전략
- IV. 수출 애로요인과 제언

1. 식량산업의 환경과 스마트팜

1. 식량산업의 환경변화

농업의 지속가능성 악화

■ 농업자원의 감소

- ▶ 농가인구는 급격히 감소, 고령화
 - 농가인구 : ('90) 666 → ('21) 221만명
 - 65세이상 : ('90) 11.5 → ('21) 46.8%
- ▶ 경작지면적은 매년 15~20천ha씩 감소
 - 농지면적 : ('90) 2,109 → ('21) 1,547천ha

■ 열악한 농업환경과 미래 보장 불투명

- ▶ 잦은 기상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
- ▶ 힘든 노동 기피, 삶의질 향상 중시
- ▶ 농산물 수입자유화로 가격하락







1. 식량산업의 환경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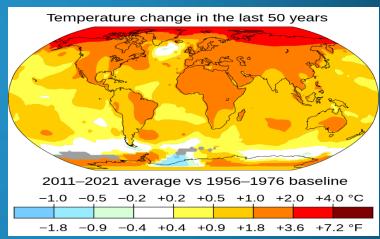
글로벌 식량위기 현실화

■ 기후변화

- ► 과거 50년동안 평균 지상기온이 0.5~1.0℃ 상승
- ▶ 폭우, 폭염, 가뭄 등 기상이변 속출
- ▶ 농작물 재배환경 변화

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식량확보 전쟁

- ▶ 농업보호주의 확산
- ▶ 국가간 분쟁에 따른 식량 무기화
- ▶ 4대 곡물메이저 국제곡물시장 장악





농업에 ICT를 접목한 지능형 농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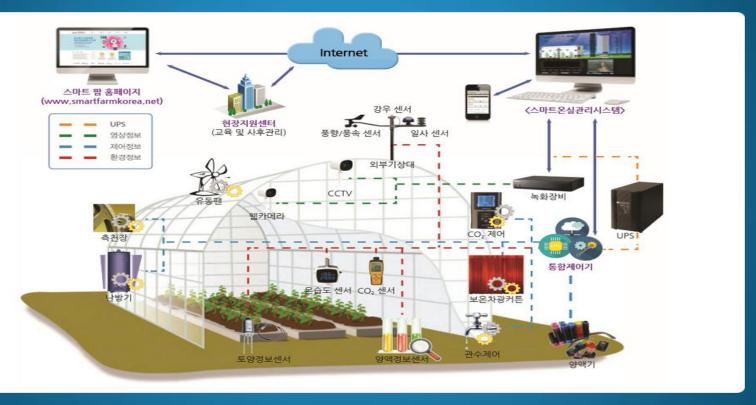
■ 스마트팜이란?

►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,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정밀조정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·관리할 수 있는 농장(지능형농장)

■ 의의와 기대효과

- ► 농작물·가축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·에너지·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능
- ►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고 미래성장산업으로 견인 가능
- ► 농작업의 시간적·공간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고, 삶의 질도 개선되어 우수 신규 인력의 농촌 유입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

■ 스마트팜의 구성



- ▶ 재배시설 : 온실, 축사, 저장고 등
- ▶ 정보관리시스템: 컴퓨터, 영상기기, 소프트웨어, 빅데이터 분석, 통신 등
- ▶ 기자재 장비 설치 : 농기계, 환경제어기, 센서기, 구동장비, 양액공급기 등

스마트팜은 계속 증가





<스마트팜 도입효과(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, 2021)>

- ▶ 자가노동시간 12.5% 감소
- ► 단위면적당 생산량 33.7% 증가, 고품질 생산량 34.8% 증가 농업소득 40.5% 증가



농업회사법인 우듬지팜(충남 부여)

■ 시설면적 : 10.8ha('13~'20)

■ 재배품목 : 토마토, 딸기 등

■ 연매출액 : 463억원('22년)

■수 출 액:40만\$('22년)



Ⅱ. 스마트팜 확산과 추진과제

1. 스마트팜 확산 추진

농식품분야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

◉ 추진배경

- ► 개방화, 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농업의 성장·소득·수출이 정체되는 등 성장 모멘텀 약화
- ▶ '스마트팜'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, 종합대책을 추진

■ 추진정책

- ▶ 농식품분야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선정(2017. 4월, 농식품부)
- ▶ 스마트팜(지능형농장) 확산방안 발표(2018.4월, 관계부처 합동)
- ▶ 스마트팜 해외수출 지원방안 발표(2019.12월, 농식품부)
- ▶ 빅데이터·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수립(2021.12월 관계부처 합동)
- ▶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방안 발표(2022.10월, 농식품부)
- ► K-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 발족(2023.1월, 농식품부)

2. 중점 추진과제

과 제 별	주 요 내 용
■ 민간주체 육성	► 청년농 창업 보육 -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(김제, 상주, 고흥, 밀양) - 실습위주 장기교육 실시(연간 200여명 규모) - 창업/취업 지원(임대농장 지원, 자금지원, 컨설팅 등) ► 스마트팜 농가 지원(실습형 농장교육)
■ 스마트농업 도입기반 확산	▶ 스마트팜 혁신밸리, 실증단지 구축 ▶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(혁신밸리 4개소, 임대팜 6개소→온실지정 확대) ▶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,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등 조성 확대
■ 스마트농업 성장기반 강화	 ▶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(데이터 표준화, 데이터 수집, 빅데이터 플랫폼) ▶ 스마트농업 R&D 강화(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) ▶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(국가표준, 단체표준 제정) ▶ '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제정('22.12월, 국회제출) - 거점단지 지정, 농업지원센터 지정,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
■ 스마트농업 수출 지원	► 한국형 데모온실 구축 : 카자흐스탄('20~'21), 베트남('20~'22), 호주('23~) - 현지 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현지마케팅·기업활동 등을 패키지로 지원 ►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운영('22.9월~) - 수출애로사항 해소 지원, 시장정보·국가별 정책 안내,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등

2. 중점 추진과제



스마트팜 혁신밸리(4개소)

전북 김제, 전남 고흥, 경북 상주, 경남 밀양

청년농 창업 보육

■ 실습위주 장기교육 및 창업 지원

Ⅲ. 스마트팜 수출 추진전략

1. 수출여건과 추진전략

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여건과 전망

■ 국제적인 식량안보체제 강화 노력 확산

- ▶ 기후변화, 세계 인구증가 등에 대비한 식량안보체제 강화 노력
 - 자국의 자급능력 확대를 위한 농업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노력
- ▶ 코로나19,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농업보호주의 확산

■ 글로벌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%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

- ► Markets&Markets 2020 : '20~'25년까지 연평균 9.9% 성장 예측
 - 시장규모 : ('20) 374 → ('25) 571억 달러
 - (한국):('20) 6.6 → ('25) 12.7억 달러(연평균 15.5%↑)
 - 정밀농업 : ('20) 64 → ('25) 110.7억 달러(연평균 11.6%↑)

1. 수출여건과 추진전략

수출 추진전략

■ 해외수요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

- ▶ 농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
 -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, K-Food의 해외진출과 시너지효과 도모
- ▶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로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
 - 온실 설비·기자재(종자, 비료, 농약 등)·재배기술·인력 등을 패키지 수출
 - 농생명분야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부가가치 확대기반 구축

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 기반 구축

- ▶ 스마트팜 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
 - 스마트팜 기술은 선진국의 70% 수준(EU 100, 미국 92, 일본 82, 중국 64)
- ▶ 핵심 전략국가의 스마트농업 시장 선점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
 - 한국형 스마트팜 보급, ODA사업 지원 등 국가간 협력 강화

중점 추진대책

■ 한국형 데모온실 구축 → 수출거점화

- ► 카자흐스탄('20~'21), 베트남('20~'22), 호주('22~) 등 3개소 추진
- ▶ 온실시공·기자재 등의 플랜트 수출
- ▶ 현지인력 양성,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



카자흐스탄 알마티 데모온실 준공(2021)

■ 스마트팜 시장개척 지원

- ▶ 수출기업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, 시장조사 및 마케팅비용 지원
- ▶ 국제박람회, 수출상담회 등 판매촉진 참가 지원
- ▶ 스마트팜 수출기업 금융지원 신설(2023년 1,000억원 규모)

■ 핵심 전략국가별 K-Farm 진출 확대

지역별	대상국	투자환경과 진출전략
중앙·동남 아시아	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,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	○ 스마트팜 기술 및 투자여력 부족, 한국형 스마트팜 관심증대 ○ 한국형 데모온실 구축, 수출거점으로 활용 ○ ODA사업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
중동	사우디아라비아, 아람에밀레이트, 카타르, 오만 등	 고온, 수자원 부족 등 기후조건 열악, 한국형 스마트팜 관심 증대 및 투자여력 보유 사막지역의 스마트팜 기술개발 연구 협력 민간기업의 스마트팜 수출지원 강화
아프리카	우간다, 앙골라, 케냐 등	○ 열악한 기후조건과 농업투자여력 부족○ 현지 시장조사와 제도 연구 등 초기 진출 인프라 구축

■ 스마트팜 수출지원체계 강화

- ► K-Food⁺ 수출확대 추진본부 운영(2023.1월, 농식품부)
 -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(스마트팜, 농기계, 농약, 종자 등) 수출 연계 추진
 - 수출지원정책 공유, 민간과 협력의제 발굴, 전문가 자문단 운영
- ▶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운영(2022년 9월, 농식품부)
 - 수출애로사항 해소 맞춤형 지원, 신규 프로젝트 발굴 협력
 - 수출관련제도, 법률 상담 등 기업체감형 지원 강화
- ▶ 스마트팜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
 - 농어촌공사, KOTRA(해외무역관), 금융기관 등 수출지원 업무협력
 - 수출 관련업계와의 협업체계 구축

스마트팜 수출추진 사례

수출기업	사업시기	사업내 용
이수화학	2019년 11월	∘ 중국 신장성 스마트팜단지 조성(총45ha 중 5ha 완료)
플랜티팜	2022년 05월	∘ 쿠웨이트에 수직농장 구축(660㎡)
농심	2022년 07월	∘ 오만 정부와 컨테이너 수직농장 연구 및 보급계약
알가팜텍	2022년 12월	∘ 쿠웨이트 농업법인 '테라팜스'와 실내 수직농장 구축 계약
우듬지팜	2023년 01월	∘ UAE 농업법인 '일라이트 아그로'와 온실 구축 MOU 체결
포미트	2023년 01월	∘ UAE '알 마리나 홀딩스'와 딸기 수직농장 구축 MOU 체결

◉ 플랜티팜

- 쿠웨이트에 수직농장 구축 (2022.5월 완공)
- 설비규모 200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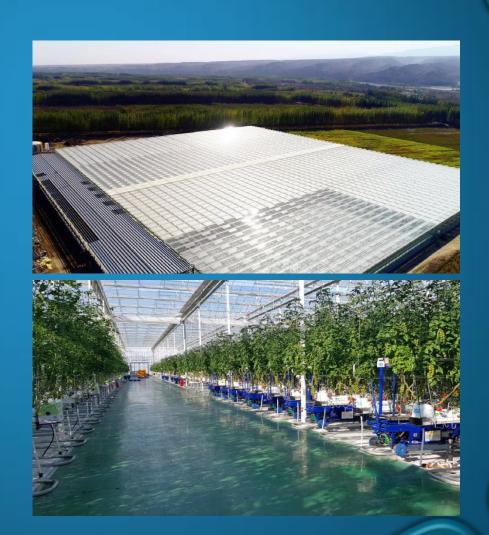






■ 이수화학

- 중국 신장성 대규모 온실 플랜트단지 조성
- 스마트팜 단지 총 45ha중 1차 5ha 구축 완료 (2019.11월)



■ UAE 경제사절단 참가 (스마트팜 수출기업 8개사)

► 현지기업과 MOU 체결(3건 5,600만달러)







Ⅳ. 수출애로요인 및 제언

수출 애로요인 및 제언

■ 수출 애로요인

- ▶ 스마트팜 수출대상국 시장 정보 부족(국가정책, 관련제도 등)
- ▶ 스마트팜 수출기업의 영세성과 교섭력 부족
- ▶ 시설기자재 규격화 미비, 전기규격 상이, 통신망 호환성 곤란
- ► 스마트팜 기자재 HS 코드적용 상이(관세 부과문제 발생)
- ▶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제도 활용 곤란(금융상품, 금융결제 이용 불편)

■ 수출확대를 위한 제언

- ▶ 해외수출 관련업계간 정보 교환과 신규프로젝트 발굴 협력
- ▶ 대형 건설사와 스마트팜 업계의 전략적 제휴로 시장교섭력 강화
- ▶ 수출대상국의 관련제도, 법률, 관련절차 공유
- ▶ 수출관련 시설장비, 물류체계 공동이용으로 비용절감 유도

감사합니다